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량과 무급노동시간분담을 영향요인*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 약]

젠더평등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여성과 남성이 파트너로서의 삶을 규정하고 배열하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가사노동, 돌봄노동) 시간량과 무급노동시간분담을 살펴보고,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일에 비해 주말에 기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분담율이 모두 증가하였고 영향요인도 다르게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기혼 남성의 주당근무시간과 성역할태도이다. 남성의 주당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사·돌봄·무급노동 시간량과 분담율이 감소하였고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사·돌봄노동·무급노동 시간량과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였다. 시간가용성 요인 중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평일과 주말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무급노동시간분담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 주당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정적요인이었으나 주말에는 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은 평일에는 남성과 부인 절대소득, 상대소득이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평일에는 부인의 절대소득이 높아질수록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주말에는 본인(남성)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남성의 성역할태도의 평등한 변화와 유급노동시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혼남성 무급노동시간, 노동시간 분배, 무급노동시간분담율, 젠더평등

* 이 논문은 이혜정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가공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서구사회가 탈산업화와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한 복지국가로 재편을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일-가족양립정책을 포함한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어 왔다. 일-가족 양립 정책을 비롯한 가족정책, 여성정책의 확대 및 변화가 우리 사회의 젠더평등을 가져왔을까? Esping-Andersen(2009)은 사회제도라는 거시적 수준의 변화가 여성과 남성이 파트너로서의 삶을 규정하고 배열하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적응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젠더평등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 사회의 제도·정책적 변화가 생활세계,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적응으로 이어져야 젠더평등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 안에서 무급노동시간 분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생활시간 사용 양상과 배분 양상은 한 사회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한 사회 구조를 생생하게 반영한다. 또한 시간은 더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일과 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된다(Jacobs et al., 2004). 시간 분배(Time divide)는 일과 생활의 불균등과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특히 무급 시간 배분은 일과 가족,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영위, 가족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접근하기 위한 관건적 요소이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배분은 다시 사회적으로 성별분업을 확대하는 구축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동안 무급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송다영, 2014; 김영미, 2014; 안미영, 2016; 김소영·진미정, 2016; 김진욱·권진, 2017; 주익현, 2022; Sayer et al., 2009; Craig and Powell, 2011; McMunn et al., 2020). 이들 연구는 주로 남녀 시간 분배를 자원의 크기로 설명하는 자원이론(교섭이론), 시간가용성 이론, 성역할 이론(젠더가설) 등으로 남녀(부부)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각 연구들은 남성전체 혹은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은기수, 2009; 김영미, 2014; 안미영, 2016; 김소영·진미정, 2016). 본 연구는 가족 영역 역할이 확대되고 유급노동시장에서의 역할도 집중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연구는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을 구분하지 않거나 시간의 절대량만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았다. 우선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을 통합할 경우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변화추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량만을 다룰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시간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는 생활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분담 수준에 대한 접근을 놓치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부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량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해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지민웅·조민수, 2014; 주익현·최성수, 2019; Sulliva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5차 생활시간조사(201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유급-무급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

부부(파트너)의 시간사용은 주로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시간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 젠더이데올로기 이론(gender Ideology)으로 설명되어 왔다(Brines, 1994; Coltrance, 2000; Greenstein, 2000; Sullivan et al., 2018).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은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으로 가족 내의 노동시간 분배가 이타심의 발현이 아닌 협상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무급노동 분담은 자원, 즉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부부는 무급노동분담을 위해 자원과 평등한 교환을 고려한다(Berk, 1985; Kamo, 1988; Kühhirt, 2012). 부부는 각자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주도권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협상에서 배우자의 소득, 직업 상태 및 교육 수준에 따라 교섭 위치는 더 강해지고, 교섭 위치가 강해질수록 무급노동의 비중은 줄어든다.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가사노동 분담을 두고 남편과 부인이 경쟁하게 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은 가사노동을 피하는데 사용하게 된다(Bianchi et al., 2000).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에 의하면 자원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무급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친다(Fuwa, 2004; Hook, 2006; Gupta, 2006, 2007).

하지만 상대적 자원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 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집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통제하더라도 가사노동의 분담이 더 평등해졌다(Blair and Lichter, 1991; Crompton and Harris, 1997). Bianchi et al.(2000)도 보유한 자원이 평등해질수록 가사노동 배분이 평등해진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Brynin and Ermisch(2008: 17)도 여성 교육 수준 향상과 소득 증가로 노동수익이 가사생산 한계가치를 초과하면 돌봄과 가사를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Kan and Gershuny(2008)는 영국에서 상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무급노동(가사노동)시간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1991년과 2000년 스웨덴 생활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상대적 자원 변화는 여성 가사노동에 미미한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업이 관계 초기에 설정되고 그 이후에는 쉽게 바뀌지 않고 여성의 상대적인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자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한 결과로 볼 수 있음으로 상대적 자원의 효과에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음을 제기한다(Evertsson and Nerno, 2007). 최근 독일의 연구에서도 상대소득이 부부 내 가사분담에 관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다(Kühhirt, 2012; Nitsche and Grunow, 2016). Schober(2013)는 영국 가족패널조사(1992~2007)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영향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부모가 되면서 보다 전통적인 업무 분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Bittman et al.(2003)도 여성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으나 여성이 가구 소득의 51~100%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대적 자원이론의 예상과 다른 전통적인 가사분업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자원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젠더, 젠더이데올로기, 특정 사회의 성평등 정도, 제도 정책적 배경 등 사회제도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 자원이 경제적 자원만을 초점화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교섭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sping-Enderson and Schmitt(2020)은 신체적 매력(커플)의 무급노동시간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교섭의 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constraints)은 무급노동시간 분배에서 시간 제약성을 중심으로 바라본다(Bianchi et al., 2006; Raley et al., 2012). 노동 시간의 분배는 투자 가능한 시간 가용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보고 있다. 24시간으로 한정된 시간은 특정 역할 수행으로 인해 다른 역할이 제한한다. 시간 가용성은 외부적 제약요건(주로 시장노동)과 내부적 제약요건(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된다(Bianchi et al., 2006; Raley et al., 2012). 특히 무급노동시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급노동시간으로 시장에서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투입하는 사람은 무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시간가용성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성별 구분이 아니다. 유급노동시간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용성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서구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결과였다(Goldin, 1989). 기혼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로 가사 시간이 제한된 가구에서 남편은 더 많은 가사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제기되었다(Bianchi et al., 2000). 고용된 여성과 남성 모두 무급노동을 덜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Bianchi et al., 2006), 유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이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ianchi et al., 2006; Raley et al., 2012).

하지만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남편보다 가사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Coltrane, 2000). 또한 여성이 시간제 노동자인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해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전업주부의 남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tier and Lweins-Epstien, 2000). 특히 Craig and Powell(2011)은 남성파트너가 비정규 시간에 일할 때 여성파트너는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성 유급노동시간은 파트너의 시간 할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여성 유급노동시간이 남성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는 혼합되어 있다(Raley et al., 2012). 유급고용 수준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와 가사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상당히 일관되게 보여준다(Chesley and Flood, 2017). Powell and Craig(2015)는 호주에서 풀타임 고용된 무자녀 부부 사이에서는 무급노동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무급노동의 성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여성의 돌봄 노동의 기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되는 것이 호주 가정 내 분업의 평등에 대한 제약이 된다는 결과가 주장되었다.

Coverman(1985)은 시간 가용성 이론과 가사노동의 요구와의 접합을 시도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요구가 많을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이 증가한다고 보는 요구-반응가설(the demand-capability)을 제기하였다. 이 관점에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은 무급노동 배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무급노동 시간 배분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으나 자녀가 있고 어릴수록 돌봄에 대한 시간 배분의 필요는 높아진다. 자녀 돌봄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Craig, 2006; Roeters, Van Der Lippe, and Kluwer, 2009). 미취학 자녀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and Sawrikar, 2009; Craig and Powell, 2011). 한편 여성 무급노동 중 아동 돌봄시간은 가사노동과 달리 전일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Bonke and Esping-Andersen, 2009).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일대일로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필요시간, 즉 여가시간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Craig, 2006). 따라서 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가용 시간의 제약과 가사돌봄요구 조건에서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제기되었다(Davis and Greenstein, 2009; Evertsson, 2014). 이 이론은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다른 이론적 접근의 젠더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화된 성역할 이론(socialization gender role)과 젠더수행론(doing gender)을 제기하였다. 사회화된 성역할 이론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역할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화된 결과, 즉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성역할이론은 예상되는 방향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서의 젠더 구분과 상당히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다.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보다 가사 일은 덜 하고 유급 노동을 더 많이 하며,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남성은 전통적인 남성보다 가사 일을 더 많이 한다(Aassve et al., 2014). 성역할 인식과 경제적 협상 중 어느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성역할인식이 경제적 자원의 협상력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Greenstein, 2000). 젠더가설은 배우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의 남성이 가사노동 분담을 더 많이 하지 않는 현상(Briens, 1994; Greenstein, 2000), 여성이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해도 무급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Coltrane, 2000; Hoover-Dempsey et al., 2001).

하지만 그러한 연관성이 항상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별 역할분담이 지속되거나, 불평등 분배에 대해 여성이 공정하게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도 존재한다(Carriero, 2011). 여성의 행동은 파트너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평등주의적인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덜 평등한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보다 가사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ertsson, 2014). 하지만 여성의 성평등의식은 남성 파트너가 가사에 보내는 시간과 관련이 없었다(Evertsson, 2014). 영국에서 여성의 성평등의식은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가사일과 유급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남성의 경우 성평등의식은 가사노동, 유급노동 시간과 연관성이 없었다(Schober, 2013). 독일 연구에서는 각 배우자의 이념은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tsche and Grunow, 2016). 이는 문화적 맥락과 광범위한 사회적 규범이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별 분업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시대에 따라 점점 더 평등하게 변화되지만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나 부부(커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잠재적 불일치를 보여준다는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Taylor and Scott, 2018; Sullivan et al., 2018).

최근 젠더 수행(doing gend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젠더 수행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 아닌 일상적인 인간 상호 작용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심리적으로 뿌리내린 사회적 구성물의 결과이다(West and Zimmerman, 2009).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와 행동을 수행한다. 행위자들은 구조화된 성별분업을 내면화하고 이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행위 자체가 젠더 수행으로 간주되며 가장 유용한 변수는 바로 젠더 자체가 될 수 있다. 남편보다 부인의 경제력이 더 큰 부부의 경우 남편은 역전된 젠더 역할을 만회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더 줄이고 부인은 늘리는 식의 젠더 전시(gender display)가 나타나기도 한다(Brines, 1994; Bianchi et al., 2000; Hook, 2006). 반대로 남성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의 경우 소위 남편의 기(사회적으로 규범화된)를 죽이지 않기 위해 무급노동 부담을 늘리는데 이것도 젠더 전시(gender display)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Greenstein, 2000). 젠더 전시(gender display)는 현실에서의 상황이 젠더 수행(doing gender)과 조응하지 못할 때 젠더 관계를 복원하려는 보상 행위가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이데올로기 이론은 무급노동의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설명되는 자원의 크기나 가용시간의 관계가 아닌 불평등한 젠더 구조와 사회적 규범의 반영이며 다시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설득을 얻고 있다.

그 외에 최근 적응지체 가설(lagged adaptation)이 제기되고 있다. Sullivan et al.(2018)은 무급노동의 배분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부부의 상호작용, 거시적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가족 양립 정책과 제도, 세금 및 혜택 시스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의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물로 바라본다. 적응지체 가설은 남성의 무급노동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라본다.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남성의 무급노동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성평등의 지연에 대한 무수한 논쟁 속에서도 시계열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이 일부 증가하고 남성의 돌봄 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Bianchi et al., 2006; Sandberg and Hofferth, 2005; Sayer, 2005). 국가 간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캐나다, 호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Bianchi et al., 2006; Bittman et al., 2003; Evertsson and Neramo, 2007; Gauthier et al., 2004; Gershuny, 2000; Kan et al., 2011). Sullivan 외(2018)는 다국적 생활시간조사(MTUS)을 이용하여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여성 무급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했고, 남성 무급시간은 장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연된 세대교체 모델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가설의 핵심 변수인 세대 혹은 연령은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혼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젊은 남성 집단은 시간배분이 빠르게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Lachance-Grzela and Bouchard, 2010).

본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시간 배분을 설명하기 위해 ‘계층화 가설’을 부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2009)은 젠더혁명이 계층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고학력 중간계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했으며 높은 소득을 협상력으로 가진 고학력 여성들이 젠더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Esping-Andersen, 2009).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동류혼(동질혼) 경향성은 무급노동 분배에서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고 있다. 부부가 동시적으로 수행한 가사노동을 분석하면 대졸 학력을 가진 동질혼 부부의 경우 공동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저학력 동질혼 부부들은 전통적 젠더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고된다(Bonke and Esping-Andersen, 2009). 여성과 남성은 모두 고학력일수록 돌봄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젠더혁명의 현실적 양상으로서 계층화 가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층화 가설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바로 무급노동의 외주화(outsourcing)이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가 무급노동의 외주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부의 시간배분에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Treas and de Ruijter, 2008). 무급노동의 외주화(outsourcing) 양상은 ‘계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무급노동의 외주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잠재적인 비용과 물리적인 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외주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산 제약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내주(insourcing)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돌봄서비스를 받기보다 자녀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 돌봄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 2011).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가사노동시간 상당 부분을 외주화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가시간을 줄이면서 집중적인 돌봄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Craig, 2006). 무급노동의 외주화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시간 분배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급노동의 배분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영역이 단순히 경제학적인 비용-편익의 계산법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 일반화하는 것처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하찮은 노동이라는 일반화된 전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계층화 가설의 실증적 접근은 생활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연구자들의 무급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송다영, 2014; 김영미, 2014; 안미영, 2016; 김소영·진미정, 2016; 김진욱·권진, 2017; 허수연·김한성, 2019). 주로 생활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현황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 배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인 상대적 자원이론, 시간가용성 이론, 젠더이데올로기 이론에 따라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따라 가사노동은 무급노동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무급노동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윤자영, 2010; 조미라·윤수경, 2014; 조성호 2016). 대부분의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막내 자녀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분담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담률에 대한 연구는 허수연·김한성(2019)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허수연·김한성(2019)는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활동시간별 조사(time module)¹⁾ 방식 자료를 활용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각 연구의 결과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상대적 자원이론과 시간가용이론, 젠더가설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적응지체 관련된 변인인 연령효과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5; 이창순, 2014). 돌봄노동의 경우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길고, 남성의 경우 20~30대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주은선, 2014). 하지만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급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조미라·윤수경, 2014)도 있다. 이는 연령이 단순한 세대효과(적응지체)만이 아닌 생애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따라 유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가용이론을 뒷받침하는 유급노동시간, 미취학 자녀유무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대적 자원가설을 뒷받침하는 변인인 절대소득이나 상대소득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젠더가설을 설명하는 성역할 태도는 주로 남성에게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년도)	종속변수	교섭가설	시간가용가설	젠더가설	적응지체 가설
김수정·김은지 (2007)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남성 : 학력(-) 유급노동시간(-) 여성 : 상대소득(-)			
허수연(2008)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남성가사 :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여성가사 :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전통적 성역할태도(-) 본인소득(-)		
은기수(2009)	기혼부부 가사노동	남성가사 : 상대노동시간(-) 여성노동시간(+) 여성가사 : 상대노동시간(-, 비선형) 본인소득(-)	여성소득(+)		
윤자영(2010)	여성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사 : 보육서비스(-) 시간당임금률(-) 돌봄 : 보육서비스(-) 시간당임금률(-) 배우자소득(+)	저학력*임금률(-) 저학력*임금률(-)		
송다영(2014)	맞벌이여성 홀벌이남성 가사노동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기여도 : 근로시간, 근로일수, 노동시장 내 지위 < 젠더요인			
조미라·윤수경 (2014)	남성 가사노동 돌봄노동	저학력남성 가사노동시간 증가 크고 고학력남성 돌봄시간 증가가 큼			

1)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time diary)방식과 활동시간별 조사(time module)방식이 있다. 생활일지 방식은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년도)	종속변수	교섭가설	시간가용가설	젠더가설	적응지체 가설
조성호 (2016)	맞벌이부부 유급노동시간 돌봄시간 가사시간	남성가사 :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배우자임금률(+)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부모·기타(-) 남편연령(+, 비선형) 부인가사 : 배우자임금률(+) 배우자학력(대졸이상+) 미취학(+) 취학이하(+) 부모·기타(-)			
김소영·진미정 (2016)	부인 남편 가사노동시간	남편돌봄 : 학력(대졸이상,+) 배우자학력(대졸이상,+)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부모 및 기타(-) 연령(+, 비선형) 부인돌봄 : 임금률(-) 학력(대졸이상,-) 배우자임금률(+) 취학자녀(+) 부모·기타(-) 연령(-,비선형)	부인 : 주당근로시간(-) 본인소득비(-) 남편 : 주당근로시간(-) 부인주당근로시간(-) 학력일부(+), 성역할태도(+)		
김진욱·권진 (2017)	남성 무급 노동시간	무급노동 : 맞벌이여부, 연령, 성역할인식, 소득			
허수연·김한성 (2019)	부인·남편 가사시간, 분담률	부인 : 유급시간(-) 남편유급시간(+) 남편 : 유급시간(-) 부인소득비(+) 평등성역할태도(+)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24시간 시간 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여 왔다. 조사 결과는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측정 및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각종 복지·문화·교통 정책 수립과 학문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생활시간조사는 개인 관련 항목, 가구 관련 항목은 조사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하며, 시간일지(time diary)는 조사 대상 가구에 배포하여 조사 대상 가구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2일 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after-coded diary)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일지방식 조사는 성별평등과 삶의 질에 관련한 분석 및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Godbey and Robinson, 1997; Charmes, 2019).

본 연구는 2019년에 이루어진 5차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남편과 부인 모두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있는 부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병합을 진행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의 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종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중 남성과 여성 시간일지를 나누어 횡적 병합을 실시하여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가구 데이터에서 자녀 정보 및 가구 정보를 추출하여 결합하였다. 추출된 평일 부부 데이터는 2,968쌍이고, 주말 자료는 1,946쌍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시간 사용 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토빗회귀 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시간 변수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은 값이 0인 좌측 절단(censored)된 분포를 이루고 있어 계수의 저평가를 막고 최소자승법에 비해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토빗 회귀분석이 적절하다(Long, 1997; 김진욱·권진, 2017 재인용).

3) 변수구성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부담을 등이다. 독립변수는 각 이론을 설명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연령대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적응지체 가설의 변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연령대는 20대=1, 30대=2, 40대=3, 50대=4로 코딩된 서열변수이다.

자원가설을 설명하는 변수는 교육수준, 가구원소득수준, 상대소득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제이상으로 구분한 명목변수이다.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1, 200만원 이하=2, 300만원 이하=3, 400만원 이하=4, 500만원 이하=5, 600만원 이하=6, 700만원 이하=7, 700만원 이상=8로 코딩하였다. 상대소득은 남편소득/(남편소득+부인소득)으로 계산하였다. 자원가설 변수 중 교육수준은 계층화가설의 변수로도 해석 가능하다.

시간가용요인으로는 남편의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주당근무시간은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값으로 코딩하였다. 그 외 돌봄필요가구원수와 10세미만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성별 고정역할에 대한 태도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1, 찬성하는 편이다=2, 반대하는 편이다=3, 매우 반대한다=4로 코딩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계층화가설 변수는 가구총소득을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1, 200만원 이하=2, 300만원 이하=3, 400만원 이하=4, 500만원 이하=5, 600만원 이하=6, 700만원 이하=7, 700만원 이상=8로 코딩하였다.

〈표 2〉 주요 변인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종속변수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의 합	분단위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 시간과 관련 이동시간	분단위
	돌봄노동시간	돌봄 시간과 관련 이동시간	분단위
	남편무급노동시간분담율	남편무급시간/(남편무급시간+부인무급시간)	%
독립변수	남편/ 부인 연령대	20대=1, 30대=2, 40대=3 50대=4(서열변수)	적응지체 가설
	남편/ 부인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0 전문대이상=1	상대적 자원가설 (일부 계층화가설 해석 가능)
	남편/부인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1, 200만원 미만=2, 300만원 미만=3, 400만원 미만=4, 500만원 미만=5, 600만원 미만=6, 700만원 미만=7, 700만원 이상=8	
	상대소득	남편소득/(남편소득+부인소득)	
	남편/부인 주당근무시간	주당 주업·부업시간 합	시간가용 가설
	돌봄가구원수	돌봄필요 가구원 수	
	미취학자녀수	미취학자녀수	
	10세미만자녀수	10세미만 자녀수	
	성역할태도	매우찬성=1, 조금찬성=2, 조금반대=3, 매우반대=4	젠더 가설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1, 200만원 미만=2, 300만원 미만=3, 400만원 미만=4, 500만원 미만=5, 600만원 미만=6, 700만원 미만=7, 700만원 이상=8	계층화가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대상은 평일 2,795쌍 주말 1,945쌍이다. 평일 기혼남성 평균연령은 42.25세이고 부인연령은 39.97세였다.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가 23.8%이고 전문대재이상이 76.2%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고졸 이하 비율이 27.5%로 남편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문대재 이상은 72.5%로 나타났다. 주말 남편 평균연령은 42.43세이고 부인연령은 40.04세였다.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가 24.4%이고 전문대재 이상이 75.62%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고졸 이하가 25.6%이고, 전문대재 이상은 72.5%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세, 명, %

구분	평일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2,975		1,949		
남편 연령	평균연령	42.25	6.247	42.43	6.152
	20대	62	2.1%	36	1.8%
	30대	977	32.8%	597	30.6%
	40대	1,557	52.3%	1,093	56.1%
남편 학력	50대	379	12.7%	223	11.4%
	고졸이하	708	23.8%	476	24.4%
	대재이상	2,267	76.2%	1,473	75.6%
부인 연령	평균연령	39.97	5.999	40.04	5.856
	20대	136	4%	76	3.9%
	30대	1,303	43.8%	817	41.9%
	40대	1,385	46.6%	983	50.4%
부인 학력	50대	151	5.1%	73	3.7%
	고졸이하	818	27.5%	498	25.6%
	대재이상	2,157	72.5%	1,451	74.4%

2) 주요변인 특성 및 무급노동시간 사용 분석

평일 분석대상의 남편 주당근무시간은 47.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 주당 근무시간은 20.9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필요 가구원수는 .99명, 10세미만 자녀수는 .98명, 미취학자녀수는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소득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부인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88.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3.1%로 가장 많았다. 성역할태도는 남편이 평균 2.85, 부인이 3.31로 부인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분석대상 남편 주당근무시간은 47.8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 주당 근무시간은 20.7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필요가구원수는 .96명, 10세미만 자녀수는 .94명, 미취학자녀수는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소득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부인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90.0%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4.7%로 가장 많았다. 성역할태도는 남편이 평균 2.86, 부인이 3.32로 부인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인 특성

단위: 시간명, 시간, %

구분	평일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 주당근무시간	47.7563	14.3151	47.8846	14.1301
부인 주당근무시간	20.8978	21.8587	20.7034	21.5286
돌봄필요가구원수	.99	.871	.96	.874
10세미만 자녀수	.98	.872	.94	.877
미취학 자녀수	.62	.752	.60	.745

구분	평일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 소득	~300만원 미만	954	32.1%	592	30.4%
	~500만원 미만	1,379	46.3%	901	46.3%
	~500만원 이상	642	21.6%	456	23.3%
부인 소득	~300만원 미만	2,634	88.5%	1,754	90.0%
	~500만원 미만	281	9.5%	153	7.8%
	~500만원 이상	60	2.0%	42	2.2%
가구소득 (N=4,914)	~300만원 미만	274	13.4%	174	13.4%
	~500만원 미만	889	43.5%	541	41.9%
	~500만원 이상	884	43.1%	578	44.7%
상대소득		.7011	.1475	.7074	.1435
남편 성역할태도		2.85	.832	2.86	.820
부인 성역할태도		3.31	.756	3.32	.749

토빗 회귀분석에 앞서 기혼 남성과 부인의 생활시간 상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평일, 분석 대상 남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537.56분이었고, 가사노동시간은 27.00분, 돌봄노동시간은 30.92분, 무급노동시간은 57.92분이었다. 남편은 부부 전체 무급노동시간의 약 15.6%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말, 남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176.82분이었고, 가사노동시간은 82.95분, 돌봄노동시간은 61.74분, 무급노동시간은 144.69분이었다. 남편의 평균 무급노동시간분담율은 27.1%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평일에 비해 주말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평일에 비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일, 부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223.38분이었고, 가사노동시간은 193.68분, 돌봄노동시간은 149.88분, 무급노동시간은 343.56분이었다. 주말, 부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109.21분이었고, 가사노동시간은 228.00분, 돌봄노동시간은 109.21분, 무급노동시간은 337.21분이었다. 부인의 경우 주말에 가사노동시간은 늘고 돌봄시간은 줄어들며 전체적인 무급노동시간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생활시간 사용

구분	평일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 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	537.57	183.87	176.82	251.49
	가사노동시간	27.00	52.08	82.95	97.07
	돌봄노동시간	30.92	53.70	61.74	91.18
	무급노동시간	57.92	83.13	144.69	140.31
부인생활시간	유급노동시간	223.38	242.42	109.21	124.00
	가사노동시간	193.68	118.51	228.00	125.12
	돌봄노동시간	149.88	140.11	109.21	124.00
	무급노동시간	343.56	197.48	337.21	165.41
무급노동시간분담율		15.6%	.20	27.1%	.20

3) 기혼남성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무급노동분담을 토빛 회귀분석

토빛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일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토빛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성이 확인된 변인은 시간가용 변인 중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이었다. 미취학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고, 본인 주당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자원요인 중 부인 교육수준은 정적 요인으로, 부인의 절대소득은 부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편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부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젠더요인은 남편의 성역할태도만이 유의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주말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토빛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성이 확인된 변인은 시간가용 변인 중 남편 주당근무시간과 부인 주당근무시간이었다. 둘다 부적요인으로 남편과 부인의 주당근무시간이 길수록 주말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자원요인중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제이상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평일에 유의했던 부인의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은 유의성을 잃었다. 남편 성역할태도는 주말에도 유의한 정적 요인으로 평등한 태도를 지닐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표 6> 남편 가사노동시간 토빛회귀분석

구분		평일			주말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연령대	본인 연령대	4.465	3.767	1.190	0.191	6.281	0.030
	부인 연령대	-7.642	4.052	-1.890	-7.115	6.759	-1.050
시간 요인	돌봄필요가구원수	-23.789	13.329	-1.780	-18.312	20.898	-0.880
	10세미만자녀수	15.976	13.484	1.180	16.683	21.421	0.780
	미취학자녀수	7.605*	3.795	2.000	4.089	6.550	0.620
	본인 주당근무시간	-1.210***	0.162	-7.460	-1.074***	0.226	-4.740
	부인 주당근무시간	0.231	0.127	1.830	-0.512***	0.217	-2.360
자원 요인	본인 교육/전문대이상	0.139	4.841	0.030	31.783***	8.244	3.860
	부인 교육/전문대이상	11.745*	4.802	2.450	3.663	8.061	0.450
	본인절대소득	1.285	3.097	0.410	-7.942	4.686	-1.690
	부인절대소득	-12.278**	3.908	-3.140	0.587	5.752	0.100
	상대소득	-201.406***	46.340	-4.350	-49.926	68.714	-0.730
젠더 요인	본인 성역할태도	13.891***	2.405	5.780	15.590***	3.863	4.040
	부인 성역할태도	1.413	2.634	0.540	-4.812	4.212	-1.140
계층요인	가구총소득	0.106	2.355	0.050	9.300**	3.511	2.650
상수		155.275	38.301	4.050	106.692	54.430	1.960
Pseudo R ²		0.219			0.0065		
F(sig)		15.07***			8.26***		
left-censored observations		1,641			563		
uncensored observations		1,327			1,383		

* p<.05, ** p<.01, *** p<.001

기혼남성의 평일 돌봄노동시간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 남성의 돌봄시간은 감소하였다. 시간가용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 남편 주당근무시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된 변인이 없었다. 젠더요인은 남편 성역할태도만이 유의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혼남성의 돌봄노동시간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남편연령대로 남편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돌봄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시간가용 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가 정적요인으로, 본인 주당근무시간은 부적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본인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제 이상인 경우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남편 성역할태도는 주말에도 유의하였고 평등한 태도를 지닐수록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표 7> 남편 돌봄노동시간 회귀분석

		평일			주말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연령대	본인 연령대	-4.006	3.693	-1.080	-18.095*	6.987	-2.590
	부인 연령대	-12.656**	3.862	-3.280	-12.672	7.502	-1.690
시간 요인	돌봄필요가구원수	9.383	12.757	0.740	4.073	22.795	0.180
	10세미만자녀수	7.219	12.909	0.560	21.223	22.987	0.920
	미취학자녀수	27.056***	3.465	7.810	48.160***	7.117	6.770
	본인 주당근무시간	-1.262***	0.154	-8.210	-0.953***	0.242	-3.940
	부인 주당근무시간	0.222	0.122	1.820	-0.210	0.233	-0.900
자원 요인	본인 교육/전문대이상	-0.376	4.892	-0.080	31.741***	8.413	3.770
	부인 교육/전문대이상	7.549	4.669	1.620	-6.067	8.453	-0.720
	본인절대소득	2.250	3.040	0.740	2.491	5.169	0.480
	부인절대소득	-0.611	3.726	-0.160	11.089	6.900	1.610
	상대소득	-77.700	44.535	-1.740	62.274	77.106	0.810
젠더 요인	본인 성역할태도	9.887***		2.288	10.459**	4.000	2.620
	부인 성역할태도	3.578	2.434	1.470	5.532	4.428	1.250
계층요인	가구총소득	-3.685	2.268	-1.620	-4.859	3.959	-1.230
	상수	92.280***	34.820	2.650	8.650	62.307	0.140
Pseudo R ²		0.0402			0.0392		
F(sig)		33.54***			31.76***		
left-censored observations		1,577			851		
uncensored observations		1,391			1,095		

* p<.05, ** p<.01, *** p<.001

평일, 기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시간가용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인 주당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였고,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 주당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부인 교육수준, 부인절대소득, 남편상대소득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인 교육수준이 전문대제

이상인 경우 기혼 남성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부인 절대소득이 증가할수록 기혼남성의 무급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상대소득이 많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젠더요인은 남편 성역할태도만이 유의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가용 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가 정적요인으로, 본인 주당근무시간과 부인 주당근무시간은 부적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본인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제 이상인 경우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주말에도 유의한 정적 요인으로 평등한 태도를 지닐수록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표 8> 남편 무급노동시간 회귀분석

		평일			주말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연령대	본인 연령대	1.068	4.105	0.260	-8.169	7.477	-1.090
	부인 연령대	-12.819**	4.312	-2.970	-11.730	8.053	-1.460
시간 요인	돌봄필요가구원수	-9.873	13.686	-0.720	-14.897	21.918	-0.680
	10세미만자녀수	15.910	13.733	1.160	25.408	22.396	1.130
	미취학자녀수	26.714***	3.901	6.850	43.517***	8.500	5.120
	본인 주당근무시간	-1.860***	0.186	-10.010	-1.525***	0.271	-5.630
	부인 주당근무시간	0.324*	0.136	2.380	-0.672**	0.254	-2.650
자원 요인	본인 교육/전문대이상	-0.306	5.360	-0.060	45.783***	9.342	4.900
	부인 교육/전문대이상	13.872**	5.050	2.750	-2.457	9.363	-0.260
	본인절대소득	5.286	3.453	1.530	-4.250	5.511	-0.770
	부인절대소득	-13.453**	4.393	-3.060	6.339	7.693	0.820
	상대소득	-251.304***	53.600	-4.690	-32.832	85.085	-0.390
젠더 요인	본인 성역할태도	15.873***	2.536	6.260	19.845***	4.582	4.330
	부인 성역할태도	2.942	2.771	1.060	0.904	5.025	0.180
계층요인	가구총소득	-3.175	2.564	-1.240	4.056	4.109	0.990
	상수	264.664	42.909	6.170	168.197*	68.670	2.450
Pseudo R ²		0.0279			0.0165		
F(sig)		30.24***			23.66***		
left-censored observations		990			322		
uncensored observations		1,987			1,624		

* p<.05, ** p<.01, *** p<.001

평일 기혼남성의 무급노동부담율의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연령대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인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남성의 무급노동부담율은 감소하였다. 시간가용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무급노동부담율은 높아지고, 본인 주당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무급노동부담율은 낮아졌다. 부인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 무급노동시간부담율은 유의하게 높아졌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남

편상대소득만이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상대소득이 많을수록 무급노동분담율은 감소하였다. 젠더요인은 남편 성역할태도만이 유의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무급노동분담율은 증가하였다.

주말, 기혼남성의 무급노동분담율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연령대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인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분담율은 감소하였다. 시간가용 요인 중에서는 본인 주당근무시간만이 유의한 부적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본인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재 이상인 경우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였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주말에도 유의한 정적 요인으로 평등한 태도를 지닐수록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였다.

<표 9> 남편 무급노동시간분담율 회귀분석

		평일			주말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연령대	본인 연령대	-0.003	0.010	-0.330	-0.012	0.011	-1.050
	부인 연령대	-0.024*	0.010	-2.290	-0.027*	0.013	-2.080
시간 요인	돌봄필요가구원수	0.003	0.039	0.090	-0.012	0.040	-0.300
	10세미만자녀수	-0.004	0.039	-0.110	0.027	0.040	0.670
	미취학자녀수	0.041***	0.009	4.580	0.020	0.011	1.740
	본인 주당근무시간	-0.003***	0.000	-8.750	-0.003***	0.000	-5.770
	부인 주당근무시간	0.003***	0.000	7.770	0.000	0.000	0.980
자원 요인	본인 교육/전문대이상	0.009	0.013	0.720	0.071***	0.016	4.470
	부인 교육/전문대이상	0.023	0.012	1.910	0.000	0.015	-0.010
	본인절대소득	-0.002	0.009	-0.280	0.005	0.009	0.550
	부인절대소득	-0.022	0.012	-1.860	-0.001	0.013	-0.060
	상대소득	-0.514***	0.123	-4.190	-0.189	0.144	-1.320
젠더 요인	본인 성역할태도	0.039***	0.006	6.450	0.032***	0.007	4.480
	부인 성역할태도	0.008	0.006	1.200	-0.003	0.008	-0.350
계층요인	가구총소득	0.007	0.007	1.020	0.001	0.007	0.170
상수		0.485	0.096	5.050	0.448	0.112	4.000
Pseudo R ²		0.3581			0.3789		
F(sig)		49.01***			16.87***		
left-censored observations		984			317		
uncensored observations		1,987			1,624		

* p<.05, ** p<.01, *** p<.001

5. 논의

본 연구는 복지국가 구축과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책과제를 압축적으로 구현하기 다양한 정책조합을 확장해온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 양상을 생활시간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과 가족, 생계와 돌봄의 요구가 가장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남성(남편)의 무급노동 시간량과 무급노동분담율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평일과 주말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량, 돌봄노동시간량, 무급노동시간량, 무급노동시간분담율의 영향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평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시간가용 변인 중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자원요인 중 부인 교육수준(+), 부인절대소득(-), 본인상대소득(-), 젠더요인 중 본인 성역할태도(+) 등이 유의하였다. 주목할 결과는 부인의 절대소득이 증가할 때,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이 감소하는 것이다. 돌봄노동시간에는 부인연령대(-), 시간가용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 남편 주당근무시간(-), 젠더요인 중 본인 성역할태도만이 유의하였다. 돌봄노동시간에는 자원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무급노동시간에는 부인연령대(-),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자원요인 중에서는 부인 교육수준(+), 부인절대소득(-), 남편상대소득(-), 젠더요인 중 본인 성역할태도(+)가 유의하였다. 무급노동분담율에는 부인연령대(-), 시간가용요인 중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자원요인 중에서는 남편상대소득(-), 젠더요인 중 본인 성역할태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주말은 평일과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가사노동시간에는 남편 주당근무시간(-)과 부인 주당근무시간(-), 남편 교육수준(+), 본인 성역할태도(+) 등이 유의했다. 평일에 유의한 변인이었던 부인 절대소득, 남편 상대소득의 영향력은 유의성이 사라졌다. 주말 돌봄노동시간에는 남편연령대(-),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본인 교육수준(+), 본인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변인이었다. 무급노동시간에는 시간가용 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수(+), 본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자원요인 중에서는 본인 교육수준(+), 본인 성역할태도(+) 등이 유의했다. 무급노동시간분담율에는 부인연령대(-), 시간가용 요인 중에서는 본인 주당근무시간(-), 자원요인 중에서는 본인 교육수준(+), 본인 성역할태도(+)가 유의하였다. 주말에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분담율에 본인 교육수준이 유의한 것은 자원요인뿐만 아니라 계층화가설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일과 주말 영향요인의 경향성이다. 평일과 주말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은 기혼남성 본인의 주당근무시간과 성역할태도이다. 본인 주당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분담율은 감소하였다.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시간량,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였다. 시간 가용성 요인도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평일과 주말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무급노동시간분담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부인

주당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정적요인이었으나 주말에는 부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 주당 근무시간이 긴 경우 주말에 가사노동에 집중하게 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과 무급노동을 덜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주말 여성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길다). 자원요인은 평일에는 본인과 부인 절대소득, 상대소득이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평일에는 부인의 절대소득이 높아질수록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의 젠더전시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부인 절대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외주화를 통해 가구단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절대량(남편과 부인 모두)이 감소하는 결과로 바라볼 수도 있어(계층화 가설, 이후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주말에는 본인(남편) 교육 수준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일에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이 유급노동시간으로 인해 기피하거나 협상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말에는 충분히 시간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학력 남성의 경우 주말에 무급노동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섭효과라기보다 계층화 효과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평일에 유의했던 자원요인 변수인 소득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교육 수준의 영향력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기혼 남성 성역할 태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김진옥·권진(2017)에서도 이전 조사년도에 비해 2014년 데이터에서 남성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빠르게 단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적인 행위양식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말에 남성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급노동이 집중되는 평일에는 개인의 선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유급노동 시간의 구조가 작용하고 따라서 시간 가용성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첫째, 유급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국가 중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OECD, 2022).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도는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가 불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주 52시간제 상한 제한은 가구 수준에서 남편과 부인의 근로시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시간 갈등을 줄이고 일·가족양립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이진우·김중예, 2021).

긴 노동시간은 재생산을 전담하는 여성을 전제로 하는 남성 고용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고용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된다(Lewis and Giullari, 2005). 주간 표준 노동시간 감축에 집중한 유럽 국가에서 성평등 수준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Figart and Mutari, 2000). 늦은 감이 있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거치며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요구 확대와 재택근무 경험 확대는 노동중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노동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초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 유급노동시장 참여가 이중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중요하다.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커플)간의 무급노동시간 분배에서 여성 성역할태도보다 남성 성역할태도가 결정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Sullivan et al., 2018). 부부 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전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의 도입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 양상은 학교 현장에도 반영되어 초중등 학생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성별 격차가 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윤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 2020). 성역할 고정관념, 젠더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일-생활 균형, 성평등의식 전반을 포괄하는 성평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직 의무과목으로 성평등·인권교육을 반영하고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이 요청되고 있다(최윤정 외, 2020). 평생교육 체계 안에도 성평등 관점이 부여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의 체계 안에서 주기적인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르는 젠더평등 교육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계층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성의 교육수준이 주말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분담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국가 연구에서 기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Evertsson, Boye, and Erman, 2018)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의 계층화 현상과 함께 기혼남성의 계층화 현상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무급노동시간 분배의 계층화 양상은 계층의 대물림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가족 양립 정책 수혜대상을 정규직-전형 노동자 중심에서 비정규직-비전형 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계층화가설에 대한 접근을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 계층화가설을 포함하여 각 가설의 변인 효과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구조방정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10세미만 가구원 조사에서 재학·재원 코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족내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 수준 변인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확대해온 일-가족양립정책 등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층적 연구도 요청되고 있다. 각 제도·정책의 영향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오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소영·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4(5): 1-19.
- 김수정·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 사회학』, 41(2): 147-174.
- 김영미, 2014, “복지국가 제도과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사회정책』, 21(1): 143-177.
-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김진욱·권진, 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81-215.
- 송다영, 2014, “남녀 직장인의 무급노동시간 격차와 일가족양립 정책에의 함의: 서울시 직장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3): 169-206.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12: 13-40.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육아정책연구소.
- 윤자영, 2010, “모(母)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2): 27-52.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진우·금중예, 2021,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정부학연구』, 27(1): 219-247.
-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2): 29-54.
- 조미라·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 5-30.
- 조성호, 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주은선,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주익현, 2022, “아내 소득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조사시기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6(1): 15-26.
- 주익현·최성수, 2019,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때’: 부부 간 가사노동 분업에서 시간대 동기화의 중요성”, 『한국사회학』, 53(2): 213-251.
- 지민웅·조민수, 2014,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제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여성경제연구』, 11(1): 1-31.
- 최윤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 2020,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허수연·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
- 통계청, 2000, 2005, 2010, 2015, 201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https://kostat.go.kr>.

- Aassve, A., Fuochi, G. and Mencarini, L., 2014, "Desperate housework: Relative resources, time availability, economic dependency, and gender ideology across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00-1022.
- Berk, S. F., 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Y: Plenum Press.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and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anchi, S. M., Robinson, J. P. and Milkie, M. A.,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M., Sayer, L. C., Milkie, M. A. and Robinson, J. P., 2012, "Housework: Who did, does or will do it, and how much does it matter?", *Social Forces*, 91(1): 55-63.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and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air, S. L. and Lichter, D. T.,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Bonke, J. and Esping-Andersen, G., 2009,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n: How educational homogamy and bargaining affect time alloc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0(20): 1-13.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Brooks, C. and Bolzendahl, C., 2004, "The transformation of US gender role attitudes: Cohort replacement, social-structural change, and ideological learning", *Social Science Research*, 33(1): 106-133.
- Carriero, R., 2011, "Perceived fairness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work among dual-earner couples in Ita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47(7): 436-458.
- Charmes, J., 2019, *The Unpaid Care Work and the Labour Market. An Analysis of Time Use Data Based on the Latest World Compilation of Time-use Surveys*, International Labour Office-Geneva: ILO.
- Chesley, N. and Flood, S., 2017, "Signs of change? At-home and breadwinner parent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2): 511-534.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and Society*, 20(2): 259-281.
- Craig, L. and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74-291.
- Craig, L. and Sawrikar, P., 2009, "Work and family: How does the (gender) balance change as children grow?",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6(6): 684-709.

- Crompton, R. and Harris, F., 1997, "Women's employment and gender attit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Britain, Norway and the Czech Republic", *Acta Sociologica*, 40(2): 183-202.
- Davis, S. N. and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87-105.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and Schmitt, C., 2020, "Multi-dimensional couple bargaining and housework allocation", *Acta Sociologica*, 63(1): 3-22.
- Evertsson, M. and Neramo, M., 2007, "Changing resourc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A longitudinal study of Swedish coupl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55-470.
- Evertsson, M., 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 Evertsson, M. Boye, K., and Erman, J., 2018, "Fathers on call? A study on the sharing of care work between parents in Sweden", *Demographic Research*, 39: 33-60.
- Figart, E. and Mutari, D., 2000, "Working time regimes in Europe: Can flexibility and gender equity coexist?",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4): 847-71.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authier, A. H., Smeeding, T. M., and Furstenberg, F. F. Jr.,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time in children? Trends in selected industrialized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 647-672.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odbey, G. and Robinson, J., 1997, "The increasing prospects for leisure", *Parks and Recreation(Arlington)*, 32(6): 74-82.
- Goldin, C., 1989, "Life-cycl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isto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7(1): 20-47.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 Gupta, S., 2006, "Her money, her time: Women's earnings and their housework hours", *Social Science Research*, 35: 975-999.
- Gupta, S.,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399-417.
-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Hoover-Dempsey, K. V., Battiato, A. C., Walker, J. M., Reed, R. P., DeJong, J. M. and Jones, K. P., 2001, "Parental involvement in homework", *Educational Psychologist*, 36(3): 195-209.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Kan, M. Y., and Gershuny, J., 2008. "Gender and time use over the life course", 162-176, in *Changing*

- Relationships*, edited by Brynin, M. and Ermisch, J., London: Routledge.
- Kan, M. Y., Sullivan, O. and Gershuny, J., 2011, "Gender convergence in domestic work: Discerning the effect of interactio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from large-scale data", *Sociology*, 45(2): 234-251.
- Kühhirt, M., 2012, "Childbirth and the long-term division of labour within couples: How do substitution, bargaining power, and norms affect parents' time allocation in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5): 565-582.
- Lachance-Grzela, M. and Bouchard, G., 2010, "Why do women do the lion's share of housework? A decade of research", *Sex roles*, 63(11): 767-780.
- Lewis, J. and Giullari, S., 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the search for new policy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capabilities approach", *Economy and Society*, 34(1): 76-104.
-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cMunn, A., Bird, L., Webb, E. and Sacker, A., 2020, "Gender divisions of paid and unpaid work in contemporary UK coupl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4(2): 155-173.
- Nitsche, N. and Grunow, D., 2016, "Housework over the course of relationships: Gender ideology, resourc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from a growth curve perspectiv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9: 80-94.
- Powell, A. and Craig, L., 2015, "Gender differences in working at home and time use patterns: Evidence from Australia",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9(4): 571-589.
- Raley, S., Bianchi, S. M. and Wang, W.,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 1422-59.
- Roeters, A., Van Der Lippe, T. and Kluwer, E. S., 2009, "Parental work demands and the frequency of child-related routine and interactive activi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193-1204.
-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 Sayer, L. C., England, P., Bittman, M. and Bianchi, S. M., 2009, "How long is the second (plus first) shift? Gender differences in paid, unpaid, and total work time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0(4): 523-545.
- Schober, P. S., 2013, "The parenthood effect on gender inequality: Explaining the change in paid and domestic work when British couples become pare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1): 74-85.
- Stier, H. and Lewin-Epstein, N., 2000,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90-410.
- Sullivan, O., Gershuny, J. and Robinson, J. P., 2018, "Stalled or uneven gender revolution? A long-term process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why change is slow",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10(1): 263-279.

- Taylor, EA. and Scott, J., 2018, "Gender", in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The 35th Report*, edited by D. Phillips, J. Curtice and M. Phillips, London: The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56-85.
- Treas, J. and de Ruijter, E., 2008, "Earnings and expenditures on household services in married and cohabiting un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796-80.
- West, C and Zimmerman, D. 2009, "Accounting for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23(1): 112-122.
- OECD(2022)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2021. 7. 접속\)](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2021. 7. 접속)).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Unpaid Working Hours and the Share of Unpaid Working Hours of Married Men with Minors

Lee, Hye Jung

(Busan Labor Right Center)

Song, Da Yo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unpaid work hours(housework and care work) and share rate unpaid work hours of married men with underage children,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through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both the unpaid work hours and the share rate of married men increased on weekends compared to weekday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also different. The variables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tial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were married men's weekly work hours and gender role attitudes. The husband's weekly working hours increased, the amount and share rate of housework, care, and unpaid hours decreased. The more equal the gender role attitude, the amount and share rate of housework, care, and unpaid hours increased. Among time availability factors, housework hours, care work hours, and unpaid work hours increased on weekdays and weekends when there were preschoolers.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on the share rate unpaid work hours. Wife Working hours per week was a positive factor on weekdays, but a negative factor on weekends. In terms of resource factors, the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of the husband and wife were partially significant on weekdays. On weekdays, as the absolute income of the wife increased, the amount of hours of housework and unpaid work hours of married men decreased. On weekends, only the husband's education level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unpaid work hours for married men, time divide, unpaid work hours sharing rate, gender equality